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윤완선목자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험악한 인생을 살지 마라 (창 47: 7-9)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아침 해가 돋을 때 "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겸손함의 영성” (누가복음 7:1-10)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 줍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던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부릴 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가진 권력으로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할만한데 놀랍게도 자신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겸손한 자는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상대를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예의 바르며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장로들을 보내 와서 자신의 종을 낮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백부장은 장로들이 예수님께 알린 것처럼 식민지 민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섬김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의를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을 먼저 보내 자신의 집으로 와서 종을 고쳐 달라고 했지만 다시 친구들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6 절입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자격,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의로움이 전혀 없는 교만하고, 미련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죄인 되고 불품없고,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함으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하심과 용서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백부장과 같이 늘 겸손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겸손함만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7-8 절을 보면 “나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저의 집까지 오시지 않으시어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능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함과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극찬하셨습니다. 9-10 절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이 칭찬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칭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함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함과 용서함을 늘 깨닫고 생활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놀라운 변화와 응답, 축복과 부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시) 를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새벽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3. **주일 예배 점심** -주일 예배후에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 마무리 정리를 위한 자원자를 받습니다. 게시판에 원하시는 주일에 이름을 올려 주십시오.
4. **재정보고** - 오늘 예배후 재정 중간 보고가 있습니다.
5. **부장모임** - 오늘 오후 1시에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6. **초원모임** - 8월 22일 주일 오후에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8/15	8/22	8/29	9/05
대표기도	윤완선	김영란	유경주	고현명
헌화성도	조정욱			조현숙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3,465.51	

행사 및 모임

6-8 월	야외예배	날짜미정 (주일)
9 월	교회창립 기념예배	9 월 5 일 (주일)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살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나순규 (Indonesia)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되기도 하고 잘 안되기도 합니다. 문으로 표현한다면 가야 할 길에 문이 착착 열리기도 하고 가야 하는데 문이 닫혀 있고 막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닫힌 환경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막힌 흥해를 갈라서 열어 주셨습니다.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 성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꼭 열려 있는 문,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대로 열려 있는 상황이 꼭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린 문이라고 착각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성을 멸하겠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적국이요 원수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요나는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먹고 배를 타려고 항구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았습니다. 꼭 자신을 기다린 것 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신 것이 아닙니다. 잘못 가면 그 열린 문 뒤에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실 때도 있습니다. 흥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집트를 나왔을 때 앞을 가로 막는 흥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을 만났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만났을 때 불평, 원망, 낙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는 말입니다. 쉬운 길, 전에 있던 편하고 익숙했던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 가야할 방향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흥해를 건너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의 길을 지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이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막아 주시고, 채워 주시고, 역사하셔서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바른 방향에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가로 막는 흥해와 막아서는 군대, 없는 조건을 만나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막힌 문제를 놀랍게 풀어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바른 방향에 발걸음을 돌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전진함으로 약속하신 놀라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헌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샬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